



올해 황사 사상 최악...기침, 눈병 등 주의

'봄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황사(黃砂)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 등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사막과 황토 지대의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바람을 타고 이동해 떨어지는 현상으로 호흡기 및 안과질환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20일 "국내 황사 발원지인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고원의 혼산다크 사막과 만주지역 커얼친 사막의 강수량이 올해 들어 평년의 50% 밖에 안돼 상당히 건조한 상태"라며 "황사가 워낙 적었던 작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4. 2. 20)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청소년은 못사

앞으로 만 20세 미만 청소년들은 담배자판기에서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판기에 청소년들은 담배를 살 수 없도록 '성인인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성인인증 방법은 자판기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판독장치를 설치, 구매자의 연령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현재 동사무소나 대형 편의점 등에서 행정문서 발급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신용카드나 지문 판독 등의 방안도 검토했으나 개인의 금융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운전면허증의 경우, 판독 에러 확률이 높은 데다 무면허자가 많아 대부분의 자판기 운영업자들이 주민등록증 판독장치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

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등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못 팔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자판기는 무방비 상태"라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흡연을 막기 위해 자판기에 대해 규제장치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4. 2.23)

병원진료비 300만원까지만 환자부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개월치 병원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앞으로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본인부담금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일 때는 초과분의 5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관련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5월 도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적용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입원비와 외래, 약제비 등이다. 6개월 이내에 한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병원이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받을 수 있으므로 환자는 초과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같은 기간 여러 병원에 지급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6개월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폐암, 위암, 만성신부전, 뇌출혈 등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중증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가령 뇌출혈로 6개월간 진료비 1억 8,000만원이 나온 경우, 본인부담금 1,200만원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4,000만원 등 모두 5,200만원을 낸 환자는 앞으로 보험 비적용 진료비에다 본인부담금 300만원만 합쳐 4,300만원만 내면 된다.

현재 보험급여(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50% 수준이며, 본인부담금은 보험급여의 20~50%이다.

복지부는 "올해 중증환자 24만 8,000명의 가족이 총 1,73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30일간 본인부담금 12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돌려준다'는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120~15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 온 환자들은 최고 15만원씩 부담이 늘게 됐다.

복지부 연금보험국 송영중(宋永重) 국장은 "2005년 자기공명영상(MRI)촬영 등 보험적용 항목이 늘고 보험급여율이 현재 50%에서 2008년까지 70%선까지 높아지면 진료비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동아일보 2004. 2. 12)

흡연, 성기능 전반에 영향 미쳐

흡연은 인간의 생식기능과 성생활 건강 전반을 손상시키며 임신 가능성을 40%나 감소시킨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의학협회(BMA)는 11일 "흡연과 생식생활"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흡연 또는 간접흡연으로 매년 30~50세의 영국인 12만명이 임포(성불능)가 되고 있고 3~5천건의 유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임신 중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체중미달아를 출산할 위험이 3배 높고 유산, 사산, 조산, 태아 기형(언청이 등) 가능성도 높으며 출산 후 모유의 생산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밖에 간접흡연은 유아급사중후군(요람사), 호흡기질환, 천식과 연관이 있으며 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5살 미만의 아이들이 매년 1만 7천명에 이르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BMA의 비비엔 내선슨 박사는 흡연이 특히 섹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적"이라고 말하고 어느 날엔가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섹스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담배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직장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은 전체 임신기간 중 유급휴가를 주고, 폐쇄된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며, 언론매체들은 흡

연을 미화하는 보도를 삼가도록 촉구했다.

(조선일보 2004. 2. 12)

남성호르몬 부족하면 치매 위험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의 수전 레스닉 박사는 '신경의학'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남자 549명을 19년 동안 추적하면서 중간 중간 혈 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검사하고 알츠하이머병 발병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한 것으로 의학뉴스 전문통신 헬스데이 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레스닉 박사는 이들 중 54명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는데 다른 단백질들과 결합하고 남은 유리형(free) 테스토스테론의 혈 중 수치가 낮을수록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높고 수치가 높을수록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유리형 테스토스테론의 혈 중 수치가 절반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 수치가 50% 올라갈 때 알츠하이머병 위험은 26%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레스닉 박사는 말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 발병 10년 전부터 유리형 테스토스테론의 혈 중 수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지만 나중에 알츠하이머병이 나타난 사람은 줄어드는 속도가 현저히 빨랐다.

또 유리형 테스토스테론의 혈 중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시각기억과 언어기억(verbal memory) 기능이 좋았다.

레스닉 박사는 그러나 단순히 테스토스테론의 혈 중 수치를 높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면 도움에 되는 걱정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4. 1. 28) 